전법 일기

뜻밖의 만남, 새로운 다짐

"유튜브 운영하시는 한산 스님이세요?"

"네? 제가 온라인법당 '친절'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저를 아시나요?"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리는 넓은 전시장 한가운데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다.

도반인 무여 스님이 2년 만에 불교박람회에서 작품을 전시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나도 3박 4일간 동행했다. 세텍(SETEC)에서 코엑스(Coex)로 옮긴 장소의 변화만큼이나 전시장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랐다. 20~30대 젊은이들이 개장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 3층부터 1층까지 꼬불꼬불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부스를 둘러보는 그들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큼 꽤 인상적이었다.

박람회 부스에서 무여 스님의 다양한 작품과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그봄출판사의 책들을 소개하던 중이었다. 그때 한 스님이 우리 부스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와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한 장 집어 들고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명함으로 나를 알아보고 유명하지도 않은 내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자, 순간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밀려왔다. 온라인법당 '친절'을 운영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오랫동안 콘텐츠를 올리지 못해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웠다. 그런데 이렇게 낯선 공간에서 구독자를 만나다니 신기하고도 반가웠다.

스님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올린 명상 콘텐츠를 여러 번 보았다고 했다. 그 영상들이 힘든 시기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 했다. 누군가의 진심이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해질 때 그 고마움은 몇 배로 커진다.

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 나에게 필요하거나 유익한 것을 남기고 기억하기 위해 제작하는 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닿아 도움이 되었다니, 마음이 환해지고 큰 감동이 일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 타인에게도 이로울 수 있다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의미가, 이 작은 만남 속에서 또렷이 실감됐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스님은 "요즘은 유튜브에 새 영상이 잘 안 올라오던데요?"라며 근황을 물었다. 뜨끔했다. "앞으로는 콘텐츠를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두 눈을 부릅뜨며 나도 모르게 다짐처럼 말이 튀어나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여러 번 영상을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미루는 마음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다. 못한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안 한 것이다. 손 놓고 있던 명상 콘텐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그때 만난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불교박람회에서의 짧은 만남은 내게 작은 용기와 새로운 결심을 남겼다. 누군가의 응원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도 나와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길을, 조금 더 부지런히 걸어가고 싶다. 시선이 나에서 타인으로, 다시 세상으로 자연스레 확장되는 그 과정을 천천히, 한 걸음씩 내 속도에 맞춰 이어가야겠다.



한산 스님
온라인법당 '친절' 운영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⑮ 대화법 특강: 존중의 햇살 ②

따뜻한 경청, 갈등 해결의 지름길

요즘 학교는 갈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학교라는 말을 검색하면 자동완성 문장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모인 사회의 축소판인데, 폭력과 자동연관 검색이 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갈등을 다루는데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학교 구성원들은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육청과 법원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갈등은 서로 다른 욕구가 합의하지 못한 '과정 중인 상태'일 뿐이고, 한 개인 또한 평생 뭔가를 선택하지 못해 늘 '내적 갈등'을 겪는데 말입니다.

시장에 다녀온 엄마가 아이 방을 열어봅니다. 아이는 학원도 가지 않고 신나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채팅을 하는지 욕설을 섞어가며 정신없이 자판을 두드려 댑니다. 엄마는 불쑥 컴퓨터 전원코드를 뽑고는 방을 나와버립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수업 중 아이들에게 가상으로 이런 상황을 제시하면, 아이들은 분노를 폭발하는 메소드 연기를 펼칩니다. 자신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애태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추악한 외모로 이름이 났습니다. 거기다 낙타처럼 등이 굽었고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면 그를 사모하여 떠나지 않고, 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처가 되기보다 그의 첩이 되겠다는 이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많이 배워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음에서 구해준 적도 없으며, 재산을 모아 남에게 베풀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비결은 경청과 동조였습니다.

갈등, 뽀족한 가시의 밤송이 같아
가시처럼 뾰족한 자신의 입장은
숨은 욕구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
韓사회 어느 때보다 경청 필요해

인도에서 평생 빈민 봉사에 헌신한 '테레사' 수녀가 한 방송국에 출연했습니다. 뉴스진행자가 "당신은 하느님께 무엇을 기도하십니까?"하고 묻자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한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느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하느님도 듣습니다."

경청에 관한 두가지 에피소드입니다. 듣는 것 자체가 따듯한 햇살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 "무엇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처럼 '①주된 화제를 찾고 ②행동과 감정을 분리하며 ③감정의 배경인 욕구를 탐색하고 ④만족할 만한 약속을 찾아 타협하기'의 과정이 그 한 방법입니다.

갈등은 밤송이와 같습니다. 가시 돋친 입장만을 내세우며 서로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맨손으로 밤송이를 잡거나, 억지로 밤송이를 벌리려고 할 때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햇살은 저절로 밤송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가시처럼 뾰족한 그의 '입장'은 가시 속 알밤 같은 '숨은 욕구'를 지키기 위한 방어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경청,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인내하고 함께 들어주는 '존중의 햇살'이 절실합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왜 세계적 '부처님 생애' 콘텐츠 없을까

한국의 모팩스튜디오가 제작한 3D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The King of Kings)'가 미국에서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부활절 주간에 개봉한 '킹 오브 킹스'는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담아낸 기독교 애니메이션이다. 제작사에 따르면 '킹 오브 킹스'는 4월 28일 기준 누적 수익 5451만 달러(약 787억 원)를 달성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최종 매출액인 5384만 달러(약 777억 원)를 넘겼다.

'킹 오브 킹스'를 제작한 장성호 감독은 기획 단계부터 비기독교인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목표로 했다고 한다. 장 감독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성경을 한 줄도 안 읽어본 사람도 영화를 봤을 때 거부감이 안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처님 생애를 다룬 최초의 영화는 1923년 유명한 인도 영화감독 다다사헤브 팔케(1870~1944)의 '부다데브(Lord Buddha)'로, 전 세계적으로는 26편의 작품이 부처님 생애를 주제로 제작됐다. 이중에서 대중에게 가장 인지도가 있는 작품은 거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리틀부다〉 정도다.

'만화의 신' 데스카 오사무의 작품 〈붓다〉가 2011년과 2013년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지만, 흥행성적은 좋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부처님의 생애 관련 영화가 제작됐는데, 장일호 감독의 1964년 작품 '석가모니'다. 이후 부처님 생애의 영화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전부 무산됐다.

'부처님 생애' 관련 영화가 파급력이 적은 이유는 모두 비영어권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이다. 내용도 부처님 일대기가 중심이 돼 세계 시장보다는 내수용에 가까웠다. 반면, '킹 오브 킹스'는 제작 당시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다.

이제는 '부처님 생애'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영화나 애니메이션 한 편은 나와야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작가, 크리에이터들이 꾸준하게 불교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탄탄한 기반 위에 좋은 건물이 세워질 수 있듯이 '불교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